

할렐루야!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태국 땅에 교회가 서게 하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광이 이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민족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일들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간구합니다.

교단 파송 선교사

저희 부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선교국 훈련을 마치고 교단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사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잃었던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어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NK 소식

훈련 중에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태국에서 훈련하던 중 가장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던 설경이는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이며, 한국 생활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더욱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훈련

중에 연락이 되어서 저희 부부는 시간을 내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꽃다발을 사서 기다리고 있던 설경이를 만나니 넘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HIM HOUSE 소식

4월 사역 현장을 복귀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심방하지 못했던 HIM HOUSE의 학생들을 심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Nichakorn은 한국의 충신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충신대학교 한국어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본과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다마치고 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자의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 Chalinee은 9명의 딸 가운데 4째로 올해 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을 전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Alemi은 지금 현재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심방 중에 기도하면서 졸업 후 미얀마의 난민들 위해서 저희 부부와 같이 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 HangDan은 지금 현재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어플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 고아

미얀마의 내전 고아들은 지난해 저희들이 만들어 준 가 건물에서 안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동역자가 그곳을 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쌀을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4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아이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니 넘 반가웠고, 그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심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쌀은 지속적인 쌀공급이 필요하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구호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전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내전 피난민



4월 초 미얀마의 정부군이 카렌 마을을 폭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민 4천명이 넘게 태국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미얀마 국경의 강변에 돛자리 하나를 깔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여자들만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피난민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힘겨운 피난 길에 지쳐서 돛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해와 비를 가릴 수 있는 텐트와 모기장이 필요하다고 저녁에는 모기 때문에 잘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텐트와 모기장을 약속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오스

신대원 동기가 태국을 방문해서 라오스에 잠시 방문해서, 라오스 사역에 잠시 동역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동일하게 공산국가이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라오스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봉사와 헌신으로 선교사역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동 간에 기차 안에서도 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뻐했습니다. 또한 라오스 교회에서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 라오스 시골 학교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급식 나누어 주기



- 라오스 교회에서 복음 전파



태국에 교회 개척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태국에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에 주변에 마을들을 돌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기독교 역사 200여년이 되어가지만 기독교 인구 0.9%이며, 전도가 되지 않는 불교 국가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열방을 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NK 소식

중국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쪽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와 중국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아직 완전하게 길을 열지 않고 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듯이 곧 길이 열려서 복녜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일 전 중국에서 이동하던 그 쪽 사람들 2명이 중국 국경을 넘다가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2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예배, 기도, 찬양이 넘치고 은혜와 성령이 임재, 동행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2. 기도의 동역자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도록

3. 미얀마의 내전 고아들의 안전과 생명부지를 위하여, 목마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4. 200여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0.9%의 기독교 국가인 태국 땅에 교회 개척과 소수민족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위하여
5. NK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다시 HIMHOUSE OPEN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비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렌트비와 아이들 생활비 그리고 교회 개척위한 비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치앙마이

장하진, 김하은 선교사